

이주노동자 토안 위한 108km 마라톤 대장정

한 발 한 발 부처님 마음으로 뚚 108km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교 108km 울트라마라톤’ 완주를 하고 막 도착한 진오 스님(구미 대문사 주지, 꿈을꾸는사람들 대표)은 지친 표정이었다. 12시간 안에 완주하겠다는 스님은 16시간 45분 59초 만에 들어왔다. 스님은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어 보였다.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도안, 토안”이라며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27)을 찾았다. 토안은 스님이 도착하기 3시간 전부터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토안을 본 스님은 토안을 살짝 포옹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 토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일로 108km를 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짧은 완주 소감 안에 깊은 바람이 들어가 있었다. 진오 스님과 대구 상락선원 혜문 스님, 장원 성불사 승지 스님은 사고로 뇌 반쪽을 잃은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을 돕기 위해 108km 불교울트라마라톤에 참가했다.

토안은 2007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 일을 하던 중 2010년 7월 교통사고로 두개골 절반을 드러냈다. 3차례에 걸쳐 수술이 진행됐지만 뇌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토안은 한국에 올 때 빚진 2000만원을 갖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다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달랑 5만 4000원이 전부였다. 이 소식을 접한 진오 스님은 마라톤러 스님들과 함께 토안을 위해 108km를 달리기로 했다. 1km마다 100원을 모금하는 운동도 진행해 200여 명의 동참자를 모았다. 108km 완주하면 한 사람당 1만 800원을 기부해 토안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돕기로 했다.

4월 23~24일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와 불교108울트라마라톤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불교 108km 울트라마라톤’이 개최됐다. 진오·혜문·승지 스님은 승복 차림이었다. 가방에는 ‘토안에게 남개를 달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현수막을 달았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자비 나눔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오후 6시 출발 직전 진오 스님은 다시 한 번 토안을 포옹하고 나서야 출발했다.

108km 17시간 내 완주
 1km에 100원 기부 운동

17시간 안에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출발해 신촌 봉원사, 갈현동 수국사, 파주시 보광사, 고양시 흥국사, 정릉 봉국사, 보문동 보문사를 거쳐 조계사로 돌아오는 코스는 쉽지 않았다. 사찰이 산에 있기 때문에 경사도 가파르고, 곳곳에 진행되는 공사는 잠시 간 뛰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 아닌 장애물이 됐다. 하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자신과의 도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108km를 17시간 내에 달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마라톤으로 단련된 스님들이지만 스님들에게도 완주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스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150여 참가자들에게 스님은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토안에게 꼭 희망을 전 달하고 싶었다.

24일 새벽 5시 50분 첫 주자가 완주를 하고 난 후 9시 23분 혜문 스님과 이수완 청각장애 마라톤러, 가톨릭 마라톤 동호회원이 함께 15시간 22분만에 조계사 입구에 도착했다. 혜문 스님은 결승 테이프를 끊기 전 대중전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스님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도착한 혜문 스님은 완주 후 더 힘이 넘쳐보였다.

“마라톤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차려 피곤하면 쉬고 빠르면 속도를 늦추면서 템포를 조절합니다. 내 몸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상태 즉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앉아서 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 수행입니다. 내 존재를 바로 보게 되면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토안과 같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보시의 기회를 모두가 함께 나누게 돼 기쁩니다.”

혜문 스님은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4월 3일 소백산 마라톤대회, 10일 대구 마라톤대회,

16일 장애인 1004 릴레이 희망 마라톤에 참가했다”며 불자들이 마련한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승복을 입고 뛰는 스님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도 마라톤 하는 스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울트라 마라톤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간에는 내 종교, 네 종교도 없으며 장애인 비장애인도 없고, 지역도 국경도 나이도 성별도 떠나 하나가 됐다.

승복 입고 마라톤 참여 포교 효과 대
 마라톤 수행... 승속·국경·종교 초월

10시 20분 승지 스님이 도착했다. 승지 스님의 승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승복에 흘러 양쪽 팔에서 난 피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 십 차례 전국 마라톤에 참가해 온 스님은 늘 가장장삼을 입고 뚚다. 승지 스님은 진오·혜문 스님에게도 승복을 입고 뚚 것을 제안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스님은 가장장삼을 모두 갖춰 입고 뛰었다.

“가장장삼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수

행이자 포교이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자들이 마련한 마라톤에 참여하는 일은 또 하나의 불교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따랐지만 완주하는 모습을 꼭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가장 고령자인 김주원(71) 씨는 42.195km 완주만 56분을 했고, 울트라 마라톤 완주도 42번이나 했다. 완주하고 돌아와서도 누구보다 활력 넘쳤던 김주원 씨는 “마라톤은 삶에 활력을 준다. 내일이 죽는 날이라고 해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저한 식생활을 통해 내 몸을 살피며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린

다”며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덕을 베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難行能行 尊重如佛]이라 했다. 108불교울트라마라톤은 기록을 위해서도, 매달을 위해서도, 성취를 위한 것도, 쾌락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한 발 한 발 내딛음이 수행이었고,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님의 걸음이었다. 토안 돕기 전용계좌(농협 301-0078-2684-11 예금주 꿈을이루는사람들)

글=이상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진오 스님(왼쪽)이 출발 직전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개골 반쪽을 잃은 토안이 마라톤에 참가한 스님과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오른쪽부터) 토안, 진오 스님, 승지 스님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님이나 불자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는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심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경, 의상조사법성경,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पाल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